



안녕하세요? 강진 씨튼 어린이집에서 사도직을 하고 있는 남영화 수녀입니다. 1997년 3월1일 입회하여, 작년에 25주년을 지내고 새로운 날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저는 강진과 비슷한 곳 전라북도 익산시 용안 안에 있는 석동리라는 작은 시골마을로 집 뒤로는 아름다운 금강이 흐르고, 넓은 들판이 펼쳐진 곳에서 7형제 중 여섯 번째로 태어났습니다.

언니 셋과 오빠 둘 그리고 남동생이 있습니다. 부모님은 농사를 지으셨고, 아버지는 말씀은 없으셨지만, 자식들을 믿고 기다려 주셨고, 어머니는 저희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 주셨으며 무엇이든 저희들

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저희 집안은 유교집안 있었는데, 큰 언니의 세례와 수녀원 입회로 가족이 모두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성당 유치원에서 몬테소리 교육을 하며 근무하던 중 수녀원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사랑의 씨튼 수녀님들이 용안 본당에 파견 오시게 되어 수녀님들을 만나게 되었고, 항상 웃는 모습과 신자들에게 따뜻하게 다가가는 모습 그리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나도 씨튼 수녀원에 가면 항상 기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입회를 하게 되었고, 수도생활을 통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느님을 만나며,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라



는 말씀이 삶의 모토가 되었습니다.

수도생활 중 18년이라는 시간을 아이들과 함께 하며, 동원하여 기도 상에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아이들의 모습, 무엇을 해야 할지 스스로 선택하며 몬테소리 교구를 하고 놀이를 하는 아이들의 모습 그리고 지구를 생각하며, 자신들의 장난감을 나누고 이웃을 위해 사랑의 실천하는 아이들의 모습, 차량으로 이동할 때 '선생님 기도하고 출발해요.'라고 외치는 아이들에게서 '하느



님 나라가 이곳이구나.'라고 느낍니다.

우리 아이들이 성장 해 나가며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하느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씨튼 어린이집에서의 행복한 추억들을 되새기며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자신들의 삶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길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며, '사랑하는 씨튼 친구들!!'를 외치며 주님 안에서 새로운 오늘을 아이들과 함께 출발합니다.





Hello, I'm Sister Nam Yong-Hwa. I am ministering at Gangjin Seton Daycare Center. Entering on the first of March 1997, I celebrated the silver jubilee last year; every day is new for me. I was born as the sixth of seven siblings in a small rural village called Seokdong-ri in Yongan, Iksan-si, Jeollabuk-do, similar to Gangjin, with the beautiful Geumgang River flowing behind the house and a wide field.

I have three older sisters, two older brothers, and one younger brother. My father was a farmer, a man of few words, who had faith in his children and waited for us. My mother was a good listener and allowed us to do whatever we wanted. Our family's religion was Confucianism; however, our oldest sister's baptism and entrance to a religious community made us all become Catholic. All of our family was baptized. After graduating from university and working as a Montessori child education teacher at a kindergarten belonging to a Catholic parish, I met sisters of Charity of Seton Hill who came to minister to Yongan Parish.



At that time, I was thinking of a religious vocation. Our sisters always smiled at the parishioners and approached them with warmth. They showed a life of joy and happiness, so I thought if I entered the Sisters of Charity of Seton Hill, I would live happily like them always. So I entered, and the words: "I Encounter God who loves me more than I love myself; God is love." became my life's motto.



I spent eighteen years of my religious life with children. I feel "the kingdom of God is here" through looking at the children who come to the daycare center and begin the days with prayer, playing with one another after finishing Montessori class, and sharing toys with friends to practice the love of their neighbor. And I also feel happy whenever I hear them shout, "Teacher! Let's pray before we leave!"

when we go somewhere by shuttle.

As our children grow up, I pray they will recall God's love and all the happy memories here, so they can have the role of light and salt in this world and live with joy. Today I'm shouting, "my dear Seton friends!" again, and begin another new day with our children in the Lord.

